

초등학생 작가 양성의 주춧돌 '12세 문학상'

독자들에게 좋은 책을 추천하는 특색 있는 상이나 신인 작가 양성을 위한 문학상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일본. 이 가운데 전국 서점원들이 엄선하는 '서점 대상(大賞)'은 수상작을 발표할 때마다 큰 반향을 일으키며 벌써 4년째를 맞아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역대 수상작들은 영화화되거나 수십만 부씩 추가 판매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출판사나 작가 입장에서조차 이제 '복권' 같은 상이 되었다.

글_백원근

또 하나의 재미난 상으로 작년에 제정된 것이 '권장 도서 대상'(직역은 '읽히기 대상')이다. 여러 출판 단체들이 총의를 모아 주로 독서진흥사업 추진 목적으로 설립된 출판문화산업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이 상은 '좋아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권하도록' 돕기 위해 독자들의 추천서를 인터넷과 엽서로 받아 투표로 선정한다.

지난 2월에 발표된 첫 수상작에는 문예 부문에서 릴리 프랭키의 《도쿄타워》가, 논픽션 부문에서는 노구치 요시노리의 《거울의 법칙》이 각각 대상으로 뽑혔다.

초등학생 특화 문학상의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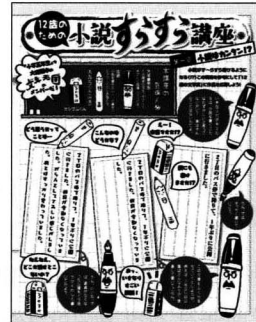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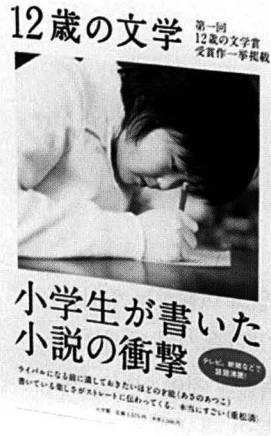
그보다 더 주목되는 상이 있다. 대형 출판사인 쇼각칸(小學館)이 주최하는 '12세 문학상'이 그것이다. 쇼각칸은 기존에도 소설, 논픽션, 만화, 그림책 등의 분야별로 여러 신인상 및 출판상을 운영해 오던 터였다. 문학상으로 최고의 권위와 인기를 누리는 나오키상이나 아쿠다가와상에서 근년에 10대 수상자가 등장할 정도로 거물급 신인의 연소화 추세가 문학과 출판계의 관심사로 대두된 이래 최초로 제정된 초등학생 전용 문학상이다. 역량 있는 어린이 저자의 발굴과 양성을 위한 작가의 조기 육성책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자사의 월간 학습지 중심으로 홍보를 하여 공모한 결과 총 2,205편이나 응모했다. 일반 문학상과 달리 원고지 10매 이상 분량에 복수 응모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유명 문학상에서조차 기록을 찾기 어려운 2,000편 이상의 투고는 첫 회부터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인구에 비해 수도권의 응모율이 높았고, 6학년 학생이 61%를 차지하는 등 고학년의 비율이 높았으며(1학년은 1%), 대다수 응모자가 여학생(79%)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지난 3월 1일 열린 첫 시상식에서 대상의 영광은 도야마현 초등 6학년생과 가나가와현 4학년생 등 2명의 여학생에게 돌아갔다. 대상작 〈달의 물고기〉 등은 작품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평점을 받았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10만 엔짜리 도서카드, 그리고 부모 동반 영국 문학여행 티켓이 부상으로 수여되었다.

시상식장에는 아사노 아츠코 등 심사위원을 맡은 작가 3인과 차기 심사위원을 맡은 이토 다카미, 홍보대사를 겸한 특별 심사위원으로 인기 탤런트인 호리기타 마키 양이 등장해 시상식장을 가득 매운 매스컴의 카메라 플래시를 받았다.

시상식을 시작하며 주최 측인 쇼각칸 관계자는 이 문학상에 대해 "다감한 10세 전후 어린이들의 넘치는 생각과 상상력을 펼치게 하고



1. 첫 번째 '12세 문학상' 수상작 모음집 (열 두 살의 문학).
2. 쇼각칸의 '12세 문학상' 홈페이지(<http://netkun.com/12saibungaku/>).
3. 웹진에 소개중인 소설 쓰기 강좌 자료.

자기표현의 세계를 생각하는 대로 해방시키는 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독서 이탈이 우려되는 시대에 이러한 상을 매개로 책에 대한 친근감을 한층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사위원을 대표해 심사 소감을 발표한 아사노 아츠코는 “솔직히 말해, 이것이 초등학생 작품일까 하면서 놀라웠다. 작품의 세계관도 뛰어나 어른보다 훌륭했고, 완성도가 높아 당황스러웠다. 우리 초등학생의 저력에 탄복했다. 굳이 말하자면 완성도가 너무 높아 재미가 없었다”며 절찬을 쏟았다.

‘초등학생이 쓴 소설의 충격’이라는 마케팅 퍼지를 두르고 출간된 수상 작품집은 4월 초 발행 직후 어린이책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오르고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을 만큼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이로 인해 어린이책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는 인기 캐릭터 관련서와 판타지 소설의 틈새에서 상당한 선전을 하고 있다. 책에는 수상작품 게재 및 수상자 인터뷰, 심사위원의 신작 단편 초대석, 소설 작법 강의, 기타 기획 아이템 등 잡지식 구성을 피해 어린이들의 흥미와 가독성을 제고시켰다. 출판사는 이상의 홍보와 정보 제공을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웹진을 발행하고 있다. 관련 소식과 소설 쓰는 법, 격려 메시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상은 쇼각칸이 발행하는 학년별 월간 학습지와 연동시키는

마케팅 전략이 특징적이다. 제2회 공모 요강도 응모 대상자들이 주요 구독층인 잡지를 통해 발표하는 등 기존 출판물과의 연관성을 살리는 한편, 수상작을 잡지와 단행본에 실어 다중적인 사업 연계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 양성 위한 참신한 문학상부터 만들어야

근래 한국문학 위기론과 일본문학의 범람이 심각한 수준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다양한 방식과 계기를 통해 창의적인 신인 양성과 작가군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대안일 것이다. 여기서 가장 긴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문학상 제도이며, 문학의 재생산 구조와 소통을 확장시키는 대안적인 문학상 제정에 뜻있는 출판사가 나서고 사회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일본의 '12세 문학상'이 던져주는 충격은 '오늘의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우려보다는 출판시장 추동 측면에서의 자괴감을 숨길 수 없다는 데 연유한다. **한경애**

백원근님은 재단법인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각종 매체에 출판정책에 관한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